

# 고문자 ‘卵’을 통해서 본 고대 ‘卵生’의 의미 考察

박성우\* · 문치웅\*\*

## 〈目 次〉

1. 들어가며
2.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卵’의 의미 검토
  - 1) 한국 전래문헌의 ‘卵’
  - 2) 중국 전래문헌의 ‘卵’
3. 고문자 ‘卵’ 풀이를 통한 ‘卵生’ 재해석
4. 나오며

## 1. 들어가며

현재 史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대시기 건국이나 주요 인물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부분 신화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三國遺事』의 단군왕검 관련 기록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를 하고, 마늘과 쑥을 먹은 후 삼칠일 후에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說과 동 史料 및 『三國史記』의 국가 형성기 기록에 출현하는 고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 등의 알에서 태어났다는 說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예부터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고대 史料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여러 신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간략히 언급해보면 현재는 산실되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三

\* 주저자: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

\*\* 교신저자: 흥익재단 연구원장

1) 李東勲校勘, 『校勘三國遺事』,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년. 박성봉, 고경식, 『譯解三國遺事』, 서울: 서문문화사, 1985년. 李民樹, 『三國遺事』, 首爾: 乙酉文化社, 1990년. 洪起熏發行, 『〈原本〉三國史記·三國遺事』, 首爾: 大提閣, 1987년.

五曆紀』의 천지 창조 盤古의 說이나 『楚辭』, 『太平御覽』에 기록된 인류 창조 女媧의 說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알에서 태어났다는 동일한 說 또한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신화’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상상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현재 문헌 풀이 바탕으로 전술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발생한 어떠한 역사 사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 몇 가지 설화 중 한·중 사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卵生과 관련된 說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詩經·商頌·玄鳥』를 살펴보면 ‘天이 玄鳥에게 명하여 내려가 商을 만들게 하였다(天命玄鳥, 降而生商).’라 하였고, 『史記·殷本紀』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殷나라 契의 모친은 簡狄이라 하는데, 유융씨의 딸로 帝嚳의 차비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玄鳥가 그 알을 떨어트린 것을 보았고, 簡狄이 받아 삼켜 임신하여 契를 낳았다(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라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생을 고대시기 영웅이나 건국시조의 탄생과 결부하여 신비화하고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난생을 이용하였나? 이 근원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물들의 등장에서 난생으로 표현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중 고대 사료에 기록된 여러 신화 중 난생신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으로 고대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卵生’에 대한 의미를 用例를 제시하여 검토하고, 당시 의미 형성에 대한 배경과 확대된 의미 변천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고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고문자 ‘卵’의 자형을 종합 분석하여 최초 ‘卵生’ 기록의 근본 발생 원인과 전반적인 인식을

2) 현재 후대에 작성된 『太平御覽』, 『藝文類聚』 등의 사료에서 일부 단락만 확인할 수 있다. <https://baike.baidu.com/item/%E4%B8%89%E4%BA%94%E5%8E%86%E7%BA%AA/6406333?fr=aladdin>. 李昉編纂; 夏劍欽校點, 『太平御覽·第一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1쪽. [唐]歐陽詢撰, 『藝文類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년, 2쪽. 劉向編集, 『楚辭』, 北京: 商務印書館, 1939년, 44-45쪽. 李昉編纂; 夏劍欽校點, 『太平御覽·第一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672쪽.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2.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卵'의 의미 검토

본고에서는 王國維가 제창한 二重證據法을 이용하고자 한다. 二重證據法은 王國維가 中華民國時期 清華學校 國學研究院에서 『古史新證』을 강의하면서 시작한 연구방법으로 紙上의 사료와 地下의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증명하는 것이다.<sup>3)</sup> 즉,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먼저 본 장에서는 '卵'과 관련된 현재 살펴볼 수 있는 한중 전래문헌의 文例를 수집하고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 전래문헌의 '卵'

한국 문헌에 나타나는 '卵'과 관련된 기록의 대부분은 위인의 탄생과 결부하였고,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 주몽 등 위인의 탄생 또는 등장과 연관되었다. 먼저, '卵'이 사용된 문헌의 기록을 분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sup>4)</sup>

(1)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으로 있었다. 거기를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푸른 빛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맡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가르니 형상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아이가 나와 얻게 되었다. ……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하고 …… 왕위의 칭호는 거슬한(居瑟邯)이라 하니 ……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形儀端美. …… 因名赫居世王. …… 位號曰居瑟邯. ……)

『三國遺事卷第一·新羅始祖 赫居世王』<sup>5)</sup>

3) 王國維, 『古史新證』,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4년, 2-4쪽.

4) 사료의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http://db.history.go.kr/>

(2)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국왕(女國王)의 딸을 맞이해 처로 삼았는데 임신한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고 바다에 띄워가는 대로 맡겼다(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并寶物. 置於櫝中. 浮於海. 任其所往).

『三國史記卷第一·新羅本記第一·脫解尼師今』<sup>6)</sup>

(3)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바라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찾아서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金合)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마치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번 절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我刀干)의 집으로 돌아와 평상에 두고 그 무리들은 각각 흩어졌다. 12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서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여섯 알은 태어나(달라져)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容貌)가 매우 훌륭하였다. 이에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賀禮)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다(未幾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乃見紅幅裹金合子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俱伸百拜. 尋還裹著抱持而歸我刀家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而六卵化爲童子. 容兒甚偉. 仍坐於床衆庶拜賀盡恭敬止. ……始現故諱首露)

『三國遺事卷第二·駕洛國記』<sup>7)</sup>

(4) 금와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비치어 몸을 끌어당겨 햇빛을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이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 승(升)쯤 되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주었다. 왕이 이를 가르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5) 洪起熏發行, 『(原本)三國史記·三國遺事』,首爾:大提閣, 1987년, 488쪽.

6) 同上, 24-25쪽.

7) 同上, 613-614쪽.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 일곱 살에 영리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 하는 까닭에 이것으로 이름을 지었다(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棄之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 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兒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嶷然異常, 自作弓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三國史記卷第十三·高句麗本紀第一·始祖東明聖王』<sup>8)</sup>

이처럼 위인들의 탄생기록을 알(卵)과 결부시켜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신비한 출생으로 서사하였다. 즉, 고대시기 왕족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신성시하여 왕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른 의미의 文例를 살펴보도록 한다.

(5) 이에 창고가 비어 없어지고, 백성들은 궁곤해지며 나라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심한 누란에 처했다(是以倉廩虛竭, 人民窮困, 邦之隕杙, 甚於累卵)

『三國史記卷第二十五·百濟本紀第三·蓋鹵王』<sup>9)</sup>

(6) 13년(754년) 여름 4월에 도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만 했다(十三年, 夏四月, 京都雹, 太如雞卵)

『三國史記卷第九·新羅本紀第九·景德王』<sup>10)</sup>

文例 (5)와 (6)의 '卵' 또한 알, 달걀의 의미로 위 언급한 신화화한 '卵'의 文例와 구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5) '累卵'의 경우 층층이 쌓아놓은 알이란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었고, (6)의 '卵'은 닭(雞)과 함께 쓰인 계란의 의미로, 文例의 의미를 파악하면 상대되는 물체의 크기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사료에서는 위인의 탄생 또

8) 同上, 123쪽.

9) 同上, 202쪽.

10) 同上, 93쪽.

는 출현과 관련되거나 동물에 대한 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계속해서 중국문헌에 나타난 '卵'과 관련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중국 전래문헌의 '卵'

先秦兩漢<sup>11)</sup> 중국문헌의 卵과 관련된 文例를 살펴보기 전에 『漢語大詞典』에 기록된 '卵'의 의미를 살펴보면, 1. 알(蛋), 2. 난생, 부화, 3. 撫育, 4. 동식물의 雌性 생식 세포, 5. 곤충의 발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 6. 舉丸, 7. 남성의 생식기, 8. 속어의 일종, 9. 청백색의 속칭, 10. 알이나 타원 형태의 물건 등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언급할 만한 의미에 관하여 文例를 제시하여 논의하는 동시에 출처자료에 기록된 文例 또한 수집 제시하여 전래문헌과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한국 문헌과 동일하게 卵을 신화화한 文例를 살펴볼 수 있다.

(7) 殷나라 契의 모친은 簡狄이라 하는데, 유용씨의 딸로 帝嚳의 차비가 되었다. 세 사람이 목욕을 하다가 玄鳥가 그 알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고, 簡狄이 받아 삼켜 임신하여 契를 낳았다(殷契, 母曰簡狄, 有娀氏之女, 爲帝嚳次妃。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

『史記·殷本紀』

(8) 秦나라의 선조는 帝 전욱의 후손 女修라고 한다. 女修가 직물을 짜는데 玄鳥가 알을 떨어뜨려 女修가 그것을 받아 삼켰고, 아들 大業을 낳았다. 大業은 少典의 자식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女華라 한다(秦之先, 帝 顯頊之苗裔孫曰女修。女修織, 玄鳥隕卵, 女修吞之, 生子大業。大業取少典之子, 曰女華)

『史記·秦本紀』

文例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史記』에서는 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삼킨 후 商과 秦의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戰

11) '卵生'의 최초 의미 파악과 지면의 한계에 따라 先秦兩漢 문헌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國시기 출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上博<sup>12)</sup>·子羔』簡：

契의 모친은 유옹씨의 딸이다. 瑤臺에서 거닐다가 제비가 알을 물어 그 앞에 던져 주니 받아서 그것을 삼켰다. 3년 동안 임신하여 가슴 부위를 그어 태어나니 큰소리로 존경을 나타내었다. 契이었다(隤{契}之母, 又{有}酉{媿}是{氏}之女【10】也。遊於央{瑤}臺之上, 又{有}鷩{燕}監{銜}卵而鷩{措}者{諸}丌{其}前, 取而{吞}之。鷩{娠}【11下段】三鷩{年}而畫{劃}於履{膺}, 生乃度{呼}曰【香港中大3】<sup>13)</sup>欽, 是隤{契}也。【12】<sup>14)</sup>

위 내용 모두 새와 모체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탄생하는 평범하지 않은 출생 경로를 지나고 있다. 더욱이 출토문헌을 통하여 일찍부터 위인의 탄생을 卵生과 연결한 서술법이 존재하였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된다. 이 이외에 중국 소수 민족의 서사시와 전설을 담은 서적에도 뱀의 알, 봉황의 알 등에서 출생하였다는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감생설화의 여러 卵生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sup>15)</sup>

두 번째, 부화, 무육 등의 文例를 살펴볼 수 있다.

(10) 암탉이 아무리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또 어떻게 (알을) 부화할 수 있겠는가(衆雌而無雄, 而又奚卵焉)

『莊子·應帝王』

(11) 음양이 비록 미묘하더라도, 수컷이 없는 암컷은 부화할 수 없다

12) 『上博』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의 약칭이다. 馬承源,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년.

13) 【香港中大】는 『香港中文大學文物館藏簡牘』의 약칭이다. 陳松長, 『香港中文大學文物館藏簡牘』, 香港: 香港中文大學文物館, 2001년.

14) 復旦大學 陳劍의 죽간 편성에 근거하였다. 陳劍, 「上博簡《子羔》、《從政》篇의竹簡拼合與編連問題小議」, 『文物』 第5期, 2003년, 56-59쪽.

15) 楊勝男, 『先秦兩漢感生神話傳說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8년, 40-45쪽.

(陰陽雖妙, 不能卵無雄之雌)

『關尹子·四符篇』

(12) 자서가 말했다. 勝을 새의 알과 같이 내가 보호(翼)해 키워 주었다(子西曰, 勝如卵, 余翼而長之)

『左傳·哀公十六年』

위 (10)과 (11)의 文例는 『莊子·知北遊』: ‘무릇 몸에 있는 구멍이 아홉 개인 것은 胎生하고 여덟 개인 것들은 난생한다(故九竅者胎生, 八竅者卵生).’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胎生과 상대되는 卵生 즉, 부화의 의미로 쓰인 문장이고, (12) 『左傳·哀公十六年』의 내용은 새의 날개로 알을 보호한다는 비유 의미를 담은 문장으로, 納蘭性德 『淶水亭雜識』에서는 ‘知古의 지위가 비천하였을 때 신이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知古微時, 臣卵而翼之).’<sup>16)</sup>라 하여 ‘卵’이 ‘撫育(정성껏 키우다, 육성하다)’의 의미로引申되어 정성으로 보살피 키운다는 의미로 확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卵’이 남성의 생식기 또는 辜丸을 의미하는 文例를 살펴볼 수 있다.

(13) 입술이 퍼렇게 되고 혀가 말리며 卵(辜丸)이 수축하면, 힘줄이 먼저 상한 것이다(故唇靑舌卷卵縮, 則筋先死).

『靈樞經·經脈』

(14) 혈맥이 왕성하지 못하면 힘줄이 오그라지고, 힘줄이 오그라지면 혀와 卵(辜丸)을 끌어당긴다. 입술이 퍼렇게 되고 혀가 말리며 卵(辜丸)이 수축하면 힘줄이 먼저 상한 것이다(故脈弗榮, 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唇靑舌卷卵縮, 則筋先死).

『靈樞經·經脈』

(15) 남자는 病色이 코끝부위(面王)에 나타나면 하복통이 있고, 아래로는 고환이 아픈 것이다(男子色在于面王, 爲小腹痛; 下爲卵痛).

『靈樞經·五色』

16) 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漢語大詞典出版社, 『漢語大詞典2.0版』, 2002년.

(16) 꺾음병으로 죽는 사람은 가슴에 열이 생겨서 목이 건조하고, 소변이 많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심해지면 혀가 말리고 卵이 수축해지며 죽는다(厥陰終者, 中熱噤乾, 善溺心煩, 甚則舌卷卵上縮而終矣).

『素問·診要經終論』

위 例文은 모두 고대 의학을 기록한 『黃帝內經』<sup>17)</sup>에 수록된 내용으로 고대시기 남성의 특정 부위의 의미로 '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 또한 출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7) 혀가 빠지고 卵(辜丸)이 말리면, 힘줄이 먼저 상한 것이다(舌招陷, 囊(卵)卷, 則筋先死<sup>八七</sup>)

『馬王堆漢墓帛書·陰陽脈死候』<sup>18)</sup>

먼저, 정리자는 '囊'에 관하여 卵과 囊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었고, 인체 卵의 전용 글자일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자형을 논하기 전에 위 나열한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기록을 조합하여 살펴보아도 문장 구성이 흡사하여 출토 자료 『馬王堆漢墓帛書』에 출현하는 자형 '囊'을 '卵'으로 考釋하고, 모두 陰囊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로 판단된다.

이상 전래문헌에 근거하면 '卵'은 우리에게 익숙한 '알'의 의미와 함께 위인의 신비로운 탄생과 연관되었고, 부화, 무육, 양육과 남성의 고환 등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출토문헌에 기록된 자형 '卵'을 분석하고, 전술한 文例를 함께 검토하여 卵生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17)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黃帝內經大詞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년.

18)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馬王堆漢墓帛書·肆』(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83년, 21쪽.

19) 同上.

### 3. 고문자 ‘卵’ 풀이를 통한 ‘卵生’ 재해석

본 장에서는 ‘卵’의 고문자 자형을 분석하여 本義와 파생된 引申義를 파악하고, 동시에 문헌의 文例를 비교하여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형 ‘卵’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說文』에서 𩺰은, 무릇 동물이 젖이 없으면 알(卵)에서 태어난다. 상형이다. 무릇 卵에 속하면 모두 卵을 의미요소로 한다(𩺰, 凡物無乳者卵生。象形。凡卵之屬皆從卵).<sup>20)</sup>라 하여 허신은 동물의 알을 형상하였다고 풀이하였다. 段玉裁 注를 보면 ‘이 乳는 유즙을 말한다. 오직 사람과 함께 네 발 달린 짐승에게 있다, 따라서 그 자식은 胎生한다. 羽蟲, 鱗蟲, 介蟲과 함께 모든 곤충은 모두 유즙이 없다, 그 자식은 卵生한다, 그러므로 무릇 동물이 젖이 없으면 알에서 태어난다고 하였다(此乳, 謂乳汁也。惟人及四足之獸有之, 故其子胎生。羽蟲、鱗蟲、介蟲及一切昆蟲皆無乳汁, 其子卵生, 故曰: 凡物無乳者卵生).’<sup>21)</sup>라 하였다. 두 견해를 종합하면 자형 ‘卵’은 난생 동물의 알을 형상하였다고 보여진다.


청대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卵은 물고기 알을 말한다. 물고기는 본래 난생하고, 생각건대 나온 알은 마치 쌀과 같고, 중심 부분을 가르고 나온다. 즉 막 안에 있는 것은 싸여있는 듯하다. 두 싸여있는 것을 비교하면 곧 알과 비슷하다. 외형은 막과 같고, 내형은 알의 원형과 같다. 무릇 알은 모두 둥글지만 독특하게 물고기 알을 취한 것은 둥근 종류가 많고, 물고기 알이 진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취하였다(卵卽謂魚卵。魚本卵生, 顧既生之卵如米, 其自腹剖出者, 則有膜裹之如裝, 而兩裝相比, 故作卵以象之。外象膜, 內象子之圓也。凡卵皆圓, 而獨取魚卵者, 圓物多, 惟魚之卵有異, 故取之).’<sup>20)</sup>라 하였고, 『禮記·內則』: ‘물고기를 삶을 때, 卵醬으로 {간을 맞추고} 여뀌를 {배 속에} 채운다(濡魚, 卵醬實蓼).’에서 鄭玄 注를 보면 ‘卵은 鯤으로 읽는다. 鯤은 魚子{물고기 알}이다(卵, 讀爲鯤。鯤, 魚子).’<sup>21)</sup>라 하여 자형 ‘卵’은 물고기 알을 형상하였다는 다른 견해를 확인할

20) [清]王筠, 『說文釋例』, 武漢: 古籍書店, 1983年, 62쪽.

2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842쪽.

수 있다. '卵'의 형태를 단대별로 나누어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 1」 '卵'의 단대별 형태


A	春秋	 次尸祭缶(《新收》 <sup>22)</sup> 1249)
B	戰國	 (  ) 望山簡2.46 <sup>23)</sup>
		 (  ) 望山簡2.53
		 包山簡265 <sup>24)</sup>
C	秦	 睡虎地秦簡《日书》甲种簡74正貳 <sup>25)</sup>
		 睡虎地秦簡《日书》乙种簡185
		 睡虎地秦簡《田律》簡4
D	漢	 马王堆一號漢墓簡81 <sup>26)</sup>
		 马王堆漢墓簡261 <sup>27)</sup>
		 马王堆漢墓帛書 <sup>28)</sup>








- 22) 『新收』는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의 약칭이다. 鐘柏生, 陳昭容, 黃銘崇, 袁國華編,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 臺北市: 藝文印書館, 2006년.
- 23)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北京大學中文系, 『望山楚簡』, 北京: 中華書局, 1995년.
- 24) 湖北省荊沙鐵路考古隊, 『包山楚簡(全兩冊)』, 北京: 文物出版社, 1991년.
- 25)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년.
- 26) 湖南省博物館,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長沙馬王堆一號漢墓』, 北京: 文物出版社, 1973년.

위의 「표 1」에 정리되었듯이 현재 ‘卵’의 자형 형태는 春秋戰國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술한 동물의 알이나 물고기 알을 형상하였다는 두 견해는 卵의 전반적인 고문자 형태에 근거하면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보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林志強은 일찍이 문자 형태를 살펴보고 ‘卵’의 本義에 대하여 雌性 생식 세포라는 또 다른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sup>29)</sup> <표 1>의 C열에서 원 자형



‘’은 ‘卵’에 소리 요소 ‘’을 추가한 ‘’의 형태로 독음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낸 자형으로 보여 진다. 이는 동 시기의 다른 의미의 비슷한 자형과 정확히 구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sup>30)</sup> 마지막으로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의 文例를 통하여






‘卵’으로 풀이한 『馬王堆漢墓帛書』의 자형 에 대하여 정리자는 卵과 彘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었고, 인체 卵의 전용 글자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장 의미에 근거한 견해로 판단된다.<sup>31)</sup>

갑골문에는  (『合集』18270)<sup>32)</sup> 형태의 자형이 있다. 이 자형에 관하여 과거 陳漢平은 은 체모 형태를 나타내고, ‘’은 남성의 생식기를 형상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說文』의 ‘’字는 ‘’의 일부분을 취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갑골문의 자형 을 ‘卵’으로 考釋하였다.<sup>33)</sup> 陳先生은 ‘卵’의 고문으로 제시한 자형 <sup>34)</sup> 부분도 갑골문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찍이 裘錫圭는

27) 李正光, 『馬王堆漢墓帛書竹簡』,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1988년.

28)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馬王堆漢墓帛書·肆』(圖版), 北京: 文物出版社, 1983年, 9쪽.

29) 李學勤主編,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12年, 1175쪽.


30) ‘北’의 睡虎地秦簡의 문자 형태를 살펴보면 ‘’, ‘’, ‘’, ‘’, ‘’ 등으로 동 시기 ‘卵’의 형태와 비슷하다. 張壽中, 『睡虎地秦簡文字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4年, 131쪽.



31)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馬王堆漢墓帛書·肆』(釋文注釋), 北京: 文物出版社, 1983年, 21쪽.





32) 『合集』은 『甲骨文合集』의 약칭이다.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2년.

33) 陳漢平, 『屠龍絕緒』,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9年, 68-69쪽.




34) (清) 閔寓五, 『六書通』, 基聞堂篆訂, 五之四九쪽.






고대 형벌 '五刑'에 관하여 소개하며 갑골문의 자형  을 '猓'으로 考釋하고, 자형 왼쪽 편방의 형태에 대하여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up>35)</sup> 이해를 돕고자 갑골문의 원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庚辰卜, 王: 朕  {猓} 羌不  [死] ?  
 (경진일에 왕이 점친다: 내가 羌족에게 (생식기 자르는) 형벌을 하면 죽지 않을까요?)  
 (『合集』00525)

갑골문 자형  와  에서 편방  와  은 동일한 형태로 식별된다. 季旭昇은 이 중, 陰經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가 고문자 '卵'의 형태와 흡사하며 陳漢平의 견해에 동의하였고, '卵'은 최초 사람의 陰囊을 형상한 글자로 동물의 알은 후기에 생성된 의미로 풀이하였다.<sup>36)</sup> 또한 黃侃은 『太玄·難』 範望注에 '卵은 陰物이다(卵, 陰物也).'<sup>37)</sup>의 내용을 통하여 '卵'은 일찍부터 남성의 陰器를 의미하였고, 더욱이 남성의 陰器라는 한 지역의 방언과 '卵'의 독음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총괄하여 전술한 이전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戰國시기 자형 '卵'은 甲骨文 형태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변화되어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전술한 견해와 卵이 일찍부터 辜丸의 의미로 사용된 文例에 근거하여 卵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sup>39)</sup>

35)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第一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 4쪽.  
 36) 季旭昇, 『說文新證』, 臺北: 藝文出版社, 2014년, 902쪽.  
 37) 宗福邦, 陳世鏡, 蕭海波主編,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년, 285쪽.  
 38) 黃侃, 『黃侃論學雜著』, 北京: 中華書局, 1964年, 419쪽.  
 39) 『古文字類編』 또한 갑골문 , ,  등 남성의 생식기를 형상한 듯한 자형을 모두 卵에 귀속시켰으며 현재 많은 학자들이 陳漢平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黃德寬主編, 『古文字譜係疏證』, 北京: 商務印書館, 2007년, 2729쪽.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戰國文字』

역대로 고문자 형태를 살펴봐도 한 문자 형태의 일부가 생략 혹은 축소되어 전승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刀’의 商代, 西周 초기 문자 형태를 살펴 보면  刀父丁鼎(『近出』<sup>40</sup>233),  子父癸鼎(『集成』<sup>41</sup>2136),  子刀簋(『集成』3079) 등으로 나타나다가 후대 戰國문자에서는  (包山<sup>42</sup>144),  (包山254) 등으로 획이 생략되어 전승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이 같은 고문자 전승과정을 근거하여 고문자 ‘卵’ 또한 자형 변천을 가늠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출토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갑골문의 남성 陰器 형태의 자형에서 戰國시기 자형 ‘卵’ 형태의 전승과정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卵’의 本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러 논증에 따라 현재 비록 ‘卵’의 本義에 대하여 확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文例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일찍부터 陰囊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陳家寧은 『史記·殷本紀』의 ‘……玄鳥가 그 알을 떨어트린 것을 보았고, 簡狄이 받아 삼켜 임신하여 契를 낳았다(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의 부분에서 卵은 즉, 남근을 의미하고, ‘알을 삼킨다(吞卵)’는 성교의 동작을 은유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sup>44</sup> 필자 또한 陳家寧의 견해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람이 알을 낳았다거나 알을 통해 사람이 잉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玄鳥가 검은 새가 아닌 부족이나 무리의 토템을 나

聲系』, 北京: 中華書局, 1998년, 1035쪽. 高明, 涂白奎, 『古文字類編(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년, 62쪽.

40) 『近出』은 『近出殷周金文集錄』의 약칭이다. 劉雨, 盧岩編著, 『近出殷周金文集錄』, 北京: 中華書局, 2002년.

41) 『集成』은 『殷周金文集成』의 약칭이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 『殷周金文集成(修訂增補本)』, 北京: 中華書局, 2007년.

42) 包山은 包山楚簡의 약칭이다. 張光裕主編, 『包山楚簡文字編』, 臺北: 藝文印書館, 1992년.

43) 예전 復旦大學의 劉釗는 『古文字構形學』에서 갑골문자 ‘형체’의 생략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卵’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의 문자 형태 일부분의 생략 혹은 축소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劉釗, 『古文字構形學(修訂本)』,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1년, 31-36쪽.

44) 陳家寧, 「說簡狄所吞之玄鳥之“卵”」,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2010년 5월 17일,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54#\\_edn18](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54#_edn18).

타낸다는 근거에 따라 당시 문장 서술의 어떠한 은유 동작으로 보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5)</sup> 더욱이 商周 시대 동이의 주요 활동지역이 현재의 산둥성(山東省), 하남성(河南省) 동부, 강소성(江蘇省) 및 안휘성(安徽省) 북부, 허북성(河北省) 일대라는 것과 동이의 주요 토템 또한 새였다는 한국 학술계의 정설에 따라 한국 역사 사료에서의 卵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46)</sup>

'卵'의 문자 분석과 전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卵'은 남성의 음기를 지칭하는 동시에 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점차 생명의 탄생 전 보금 자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의 알로 발전하였으며, 더욱이 비범하고 신이한 인물의 탄생을 나타내는 일종의 강조된 은유법의 일환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후대 위인의 탄생을 卵生에 빗댄 바탕에는 이러한 '卵' 의미 발전이 반영되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대로 오며 '卵'의 의미 발전 및 당시 은유법을 사용한 문장 서술 방식의 발전 배경이 전해지지 않으며 신화로 변질되어 인식되어 왔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위인의 난생설화는 단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신화로 치부하기보다는 위인이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는 은유법으로 해석하고, 신화가 아닌 사실을 내포한 내용으로 시각을 달리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4. 나오며

본 논문은 한중 고대 사료의 '卵'과 관련된 文例를 제시하고, 고문자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대 '卵生'에 대한 기록의 형성과 발생 원인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45) 胡厚宣은 토템 숭배는 원시 씨족 사회의 오래된 종교 형식으로 일찍이 商族은 새를 토템으로 여겼다는 증거를 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 기록을 들어 설명하였다. 胡厚宣, 「甲骨文所見 商族鳥圖騰的新證據」, 『文物』 第2期, 北京: 文物出版社, 1977년, 84-87쪽.

46) 朴明淑, 「고대 동이계열 민족 형성과정 중 새 토템 및 난생설화의 관계성 비교 연구」, 『국한연구』 14집, 2010년.

정리해보면, 먼저 대부분의 한중 사료에서는 일찍부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卵生'을 위인의 탄생과 결부하여 서술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검토한 중국 사료의 문장 用例를 통하여 戰國 시기에 이미 위인의 탄생을 卵과 연관 지은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성 생식기 형태의 자형이 후대로 오며 자형이 축소되어 「표 1」의 문자 형태로 전승되었고, 동시에 일찍부터 陰囊의 의미로 사용된 전래문헌의 기록을 함께 놓아 고민한다면 '卵'은 본래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였다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 비록 현재 문헌의 한계에 따라 本義에 대한 파악은 어려우나 일찍부터 卵 혹은 陰囊의 의미로 사용된 기록으로 판단해본다면 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고대 사료에 대하여 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史記·殷本紀』에 출현하는 '玄鳥'가 토tem을 나타낸다는 근거에 따라 고대 시기 자료 기록에 있어 특별한 인물 탄생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은유법으로 '卵'을 적용하였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료의 내용을 단순히 卵에서 태어났다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卵'은 최초 단순한 사물을 나타내다가 문장 서술에 이용된 일종의 은유법의 일환으로 고대 시기 위인 혹은 지도자 탄생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卵 혹은 卵生과 관련된 한중 고대 사료의 내용은 신화가 아닌 역사 사실로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결과에는 현재 자료의 제한으로 새로운 출토 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보충되기를 기대하며, 논증 과정의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학계 諸賢의 批評과 叱正을 바란다.

#### 〈參考文獻〉

- 陳漢平, 『屠龍絕緒』,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9년.  
 陳家寧, 「說簡狄所吞的玄鳥之“卵”」,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2010년5월17日,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54#\\_edn18](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254#_edn18).

- 陳劍, 「上博簡《子羔》、《從政》篇의 竹簡拼合與編連問題小議」, 『文物』 第5期, 2003년.
- 陳彭年, 『宋本廣韻』, 北京: 中國書店, 1982년.
- 陳松長, 『香港中文大學文物館藏簡牘』, 香港: 香港中文大學文物館, 2001년.
- 董蓮池, 『新金文編』, 北京: 作家出版社, 2011년.
- 高明, 涂白奎, 『古文字類編(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년.
- 賈文, 〈說“卵”〉, 『承德民族師專學報』 第2期, 承德: 承德民族師專學報雜誌社, 1997년.
-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 郭沫若主編,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2년.
- 〔清〕郭慶藩撰, 『莊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61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戰國文字聲系』, 北京: 中華書局, 1998년.
- 洪起熏發行, 『(原本)三國史記·三國遺事』, 首爾: 大提閣, 1987년.
- 湖北省荊沙鐵路考古隊, 『包山楚簡(全兩冊)』, 北京: 文物出版社, 1991년.
-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北京大學中文系, 『望山楚簡』, 北京: 中華書局, 1995년.
- 胡厚宣, 「甲骨文所見商族鳥圖騰의 新證據」, 『文物』 第2期, 北京: 文物出版社, 1977년.
- 胡厚宣主編, 『甲骨文合集材料來源表』,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년.
- 胡厚宣主編, 『甲骨文合集釋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년.
- 湖南省博物館,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長沙馬王堆一號漢墓』, 北京: 文物出版社, 1973년.
- 黃德寬主編, 『古文字譜係疏證』, 北京: 商務印書館, 2007년.
- 黃侃, 『黃侃論學雜著』, 北京: 中華書局, 1964년.
- 季旭昇, 『說文新證』, 臺北: 藝文出版社, 2014년.
- 李東歡校勘, 『校勘三國遺事』,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년.
- 李昉編纂; 夏劍欽校點, 『太平御覽·第一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년.
- 李民樹, 『三國遺事』, 首爾: 乙酉文化社, 1990년.
- 李圃主編, 『古文字詁林·第10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년.
- 李學勤主編, 『字源』,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12년.
- 李正光, 『馬王堆漢墓帛書竹簡』,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1988년.
- 劉向編集, 『楚辭』, 北京: 商務印書館, 1939년.
- 劉孝霞, 『秦文字整理與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3년.
- 劉雨, 盧岩編著, 『近出殷周金文集錄』, 北京: 中華書局, 2002년.
- 劉釗, 『古文字構形學』(修訂本),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1년.
- 盧元駿註譯, 『說苑今註今譯』, 臺北: 商務印書館, 1979년.

- 馬承源,『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
-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馬王堆漢墓帛書·肆』(釋文注釋),北京:文物出版社,1983年.
-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馬王堆漢墓帛書·肆』(圖版),北京:文物出版社,1983年.
- 〔清〕閔寓五,『六書通』,基聞堂篆訂,五之四九쪽.
- 〔唐〕歐陽詢撰,『藝文類聚』,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年.
- 朴明淑,「고대 동이계열 민족 형성과정 중 새 토テム 및 난생설화의 관계성 비교 연구」,『국한연구』14집,2010년.
- 裘錫圭,「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第一卷,上海:復旦大學出版社,2012年.
-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全二冊)』,北京:中華書局,1980年.
- 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漢語大詞典出版社,『漢語大詞典2.0版』,2002年.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十三經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年.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睡虎地秦墓竹簡』,北京:文物出版社,1990年.
- 〔漢〕司馬遷,『史記』,北京:中華書局,北京:清華大學出版社,1994年.
- 〔清〕王筠,『說文釋例』,武漢:古籍書店,1983年.
- 王叔岷,『莊子校詮』,臺北:樂學書局,1988年.
- 吳天明,「中國遠古感生神話研究」,『江漢論壇』第11期,2001年.
- 楊勝男,『先秦兩漢感生神話傳說研究』,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2018年.
- 〔漢〕揚雄撰,〔宋〕司馬光集注,劉詔軍點校,『太玄集注』,北京:中華書局,1998年.
- 一然著,朴性鳳,高敬植共譯,『譯解三國遺事』,서울:서문문화사,1985年.
- 一然著,申太永譯,『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서울:한국인문고전연구소,2012年.
- 尹喜,『關尹子』,上海:商務印書館,1936年.
- 張光裕主編,『包山楚簡文字編』,臺北:藝文印書館,1992年.
- 趙少咸,『廣韻疏證』,成都:巴蜀書社,2010年.
- 張世超,孫凌安,金國泰,馬如森,『金文形義通解』,京都:中文出版社,1996年.
- 張壽中,『睡虎地秦簡文字編』,北京:文物出版社,1994年.
- 鐘柏生,陳昭容,黃銘崇,袁國華編,『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臺北市:藝文印書館,2006年.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殷周金文集成(修訂增補本)』,北京:中華書局,2007年.
- 周海平,申洪硯,朱孝軒,『黃帝內經大詞典』,北京:中醫古籍出版社,2008年.
- 宗福邦,陳世鏡,蕭海波主編,『故訓匯纂』,北京:商務印書館,2003年.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Ancient Oviparity (卵生)  
by the Analysis of the Ancient Letter 'Egg (卵)'

Park, Seong-Woo / Moon, Chi-Ung

We recognize many myths about the founding of ancient times or the birth of kings in Korea and in China history literature. A brief definition of myth is more of an imaginary or mysterious story. We cannot understand myths as any historical event that has actually occurred. It is unscientific and impractical that humans are born from eggs.

This paper is the basic work of understanding the oviparity myth among the various myths recorded in the historical literature of Korea and China. We examined the various meanings of oviparity in various way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ancient Korea and China literature. In addition, examples of use of egg used in the records of the literature on a particular person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use of oviparity by focusing on its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changes along with the flow of time.

Various literature analyses have shown that egg has been used to refer to male genitals and to mean egg. It gradually developed into a symbolic egg that represented the nest before the birth of life. Furthermore, the meaning was extended to the expression of metaphor to indicate the birth of a great person or king by taking good care of a particular person. People cannot be born from an egg. The oviparity story about certain person being told is unscientific and unrealistic. This is the result of a lack of literal understanding of the egg. Therefore, oviparity about a person is a metaphorical expression that emphasizes the birth or emergence of a great person and the content of the relevant kings expressed in the literature should be understo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not a myth.

Key words: Oviparity, myth, history, egg, paleography

이 논문은 2020년 4월 7일에 접수되어 2020년 5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